

현대불교

buddhanews.com

2010 한가위 특집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은 9월 9일 '명절·기제사 술(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회를 개최했다. 차례상에 차를 올리는 모습.

정종은 일제 잔재... 차 올려서 차례

<茶>

차 올림으로 전통제례문화 복원

맑은 기운 흠향해 업식 소멸 기원

불교생활의례문화원
'명절·기제사 술(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
추석은 설,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로서
예부터 집안의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통

이었다. 지역마다 차례 상에 올리는 음식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례 상의 제주(祭酒)로는 정
종·청주 등이 올라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명절이나
기제사에 이던 술(酒) 대신 차를 올리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이사장 직무대행 김규범, 이
하 문화원)은 9월 9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2010년
불자 생활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명절·기제사 술
(酒) 대신 차(茶)를 올리자'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 공양 시연회는 불교생활의례문화원의 생
활의례봉사단 제례팀이 불교제례음식을 실제로 진
설하고 명원다도에절문화원에서 차를 우려 후 예법
에 따라 차례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은 국민대 유양석 교수(명원문화재단 고
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제주에는 김규범 불교생활
의례문화원 이사장 직무대행, 좌집사에는 이재우 불
교생활의례문화원 사무국장, 우집사에는 신현조 불
교생활의례문화원 이사가 참여했다.
문화원 측은 "일제강점기 일본의 제사문화가 유입

되면서 일본식 발효주인 정종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전통이 무시된 채 각자의 기
호에 맞는 음식들을 제사·차례 상에 올린다"고 문
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화원은 "《삼국유사》 등 옛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왕실과 사대부 등 귀족을 중심으로 제례에는
항상 차(茶)를 올렸으며, 가난한 백성은 경우 차를 살
본이 없으면 정안수로 대신했다"고 밝히며 차례문화
의 개선을 주장했다.
본래 차례는 '차례(禮禮)'라 해, 차(茶)로 행하는 모
든 예의법절을 뜻한다. 명원문화재단의 김의정 이사
장은 "통일신라시대 문무왕(재위 661-681)은 김수로
왕의 제례에 차를 올렸으며, 고려시대도 국가적 행사
에는 항상 차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율곡 이

이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제의초(祭儀抄)의
기록에서 시제(時祭)와 기제(忌祭)의 의식에 차를 올
리는 풍습이 있다'라고 말하며, 제사상에 차가 오르
는 풍습을 설명하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원은 "명절과 기제사에 술 대신 차를 올림으
로 인해 잊어져 가는 전통제례문화 복원과 효(孝) 사
상 실천 및 예의도덕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선일여(茶禪一如) 해 차와 불교는 불가분
의 관계이다. 술 대신 차를 올리는 것은 조상들에게
차의 맑은 기운을 흠향해 업식(業識)을 소멸하고 서
방정토 구품연화대에 안주하기를 기원하는 뜻"이라
고 강조했다.

글=이정은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불교차례의 순서 ■

1. 재계(齋戒)-차례 전날부터 차례에 참가하는 사
람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해 오로지 조
상만을 기린다.
2. 쇠소가묘(灑掃家廟)-차례 지날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3. 수축(修祝)-지방은 모든 조상(기제)을 받드는 4
대(조상)은 내외(부부)분씩을 따로 쓰고 축문은 한
장으로 쓴다. 봉사자(장사손은 주인이고 주인의
아내는 주부이다)는 제일 뒷대 조상과의 관계를
쓰고, 신위(神位)는 첫 조상부터 차례대로 모두 쓴
다.
4. 설위진기(設位陳器)-척기구(척) 변복
서립(變服序立)-차례기구(척) 깨끗이 닦아 놓을 자
리를 놓는다. 제수를 정성껏 조리해 준비한다. 예
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공손한
자세로 정한 자리에 선다.
5. 점축(點燭)-동서 집사가 촛불을 밝힌다.
6. 설소과다찬(設蔬菓茶饌)-제수들을 진설한다.
7. 강신분향(降神焚香)-강신이란 신위께서 강림
하시어 음식을 드시기를 청한다는 뜻이다. 분향이
라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조상의 영혼이 향기를
타고 오시라는 것이다. 주인이 분향하고 재배한
다.
8. 강신뇌주(降神酌酒) 강신뇌다(降神酌茶)-향
기로운 차를 부어 조상이 차를 통해 감응하시도록
하는 절차이다.
9. 참신(參神)-모든 참례자가 조상을 뵈는 절차이
다.
10. 헌다(獻茶)-주인이 앞에 나가 모든 신위에게
차를 올리고 재배한다.
11. 삼시정저(攝匙正箸)-한가위 차례에는 송편이
올라가므로 젓가락을(손잡이 서쪽 방향) 시집(匙
蝶:수저, 젓가락을 놓는 접시(대접) 위에 나란히
걸쳐 놓는다. 주인이 재배한다.
12. 시립(侍立)-주인과 모든 참례자가 2~3분간
공수하고 공손히 서 있다.
13. 하시저(下匙箸)-주부는 차례상 서쪽에서 순
가락과 젓가락을 내려 시집에 담는다.
14. 사신(辭神)-주인과 모든 참례자가 모두 재배
한다.
15. 납주(納主)-신주를 원래 자리에 모셔둔다.
16. 분축(分祝)-지방과 축문을 태워 나는 재를 향
로에 담는다.
17. 철찬(撤饌)-차례 상에서 제수를 내린다.
18. 음복(飮福)-제수를 나눠 먹으며 조상의 음덕
을 기린다.
19. 철기구(撤器具)-제의기구를 원래 자리에 정
리해 둔다.

불교차례의식 보급하는 법현 스님

"차례를 지낼 때 대부분 술을 올립니다. 불교
식 차례는 술보다는 차를 올리는 것이 다른 점입
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차례상에 술을 올리는 가
운데 서울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차례상에 차
를 올리자고 강조했다. 법현 스님은 1990년부터
불교차례의식을 보급하고 있다. 1997년 천중사
에서 제1회 불교식 차례시연회를 개최한 이후 매
년 열린선원에서 추석과 설 때 차례를 시연하고
있다.
법현 스님은 "차례가 차(茶)를 올리고 대접한

에게 지낸 제사 율기(飭記)에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는 내용이 발견되는 등 유교에서도 차례
에 차를 썼음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현 스님은 차를 올리는 것이 단순히 전
통을 잇는 것 뿐만이 아닌 조상을 추모하는 차례
본연의 의미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차례는 조상의 음덕을 빕고, 추모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차리기에
있어서도 흥동백서나, 조율이시 등의 원칙을 따
지기도는 조상님들이 드시고 싶어 했을 것, 또
후손들이 좋아하고 귀하게 먹는 것을 공양 올리

삼국유사 "충담 스님 미륵에 차례" 머느리 맞으면 사당에 차 공양

데 기원을 두고 있는 만큼 본 모습에 맞게 차례를
지내자는 것이다. 술을 금지하고 차만 올리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현 스님은 한국의 전통종교인 불교와 유교가
모두 차례를 중시해온 점이 여러 자료에서 발견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삼국유사》에는 다도의
효사로 알려진 충담 스님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
일 미륵세존에게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큰 스님들의 제사인 차례(茶禮)에서도 차례의 전
통을 찾을 수 있다"며 "차례라는 명칭 자체를 보
더라도 차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보다 300
여 년 앞서 차시를 남긴 현대공(現代公) 선생이 조상

고, 순서도 드시기에 편하도록 배열하면 된다. 국
산과 외국산도 신선하고 귀한 것, 조상님이 지금
계시다면 드셔봤으면 하고 싶은 것을 올리면 된
다"고 말했다.
이러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더욱 차를 올려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차를 대단히 귀하게 여겨
서 새 머느리가 들어왔을 때 시라뵈를 알아보는
데에도 차를 썼다"고 말했다.
스님은 옛 양반집에서 머느리가 들어왔을 때
사당에 제사를 지내면서 반드시 머느리가 직접
달인 차를 사당에 올리도록 한 고묘(告廟)를 예로
들며 "예전에 치는 제수 품목에서도 귀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다양한 문화가 자리한 현대에도



법현 스님이 차례상에 올리는 다제기를 설명하며
차례의 미를 강조하고 있다.

고품격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끝으로 추석이 조상의 공덕을 이야기
하고 가족들간에 대화를 통해 가정의 화목을 도
모하는 시간이 되길 축원했다.
스님은 "설과 추석이 조상님께 고하고 감사하
는 의식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그 무엇
보다 정성이 중요하다"며 "조상을 떠올리며 가
족을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행편에 맞게 3번 고
하고 절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chavala@buddhapia.com